



별은 좀 잘 그리는 것 같다! ㄱㄱ



오늘은 상큼한 월요일부터 지각을 했다. ㅎㅎ

내년에 나는 잠이 좀 줄어들었어? 잠 자는 거 행복하다~

덕이생이랑 감치볶음밥을 해먹었는데 맛 있었지만 잠? 깨웠다~

나는 특이성을 따라가려면 어썩은 만것 같다. 청양고추 좀 늘었는데... ㄱㄱ

월요일은 뭔가 정신이 맑다. 시간이 엄청 빨리간다.

월요일은 싫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다. 이미들 앓음이 보고 싶기도 했... 나? ㄱㄱ

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웃게 된다. (즐거워서든~ 어이가 없어서든~)

어느새 레북시간~ 오늘 메뉴는 볶음밥이다! 맛 있었다~

아이들과 함께 일기를 쓰는 경험은 새롭다. 기쁨 써볼까?

내년 5월 (2월의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일까?)

오늘 하루도 지나간다~ 잘 살고 있나? ㅎㅎ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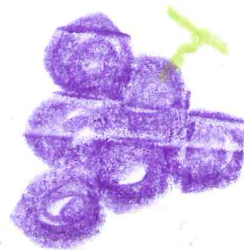
주황색 너무 좋다!
오렌지는 언제나 좋다 ㄱ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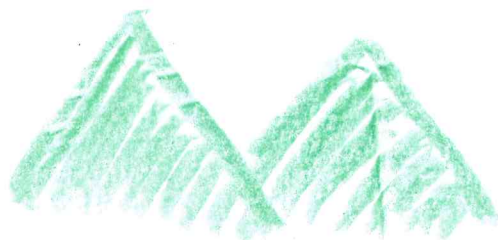
아! 오늘 하나
먹었다~



내년에는
사랑받고
있으려나? ㅎ



내 나이~



등산 가고 싶다!